

러닝타임 3시간 1분·역대 마블 히어로 총출동

역대 마블영화 최장 상영시간
마블시리즈 32개 캐릭터 등장
4편 모두 1000만 관객 도전장
역대 1위 아바타 넘을지 관심



24일 개봉하는 ‘어벤져스:엔드게임’.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지금의 마블 신화를 견고히 다진 ‘어벤져스’ 시리즈가 8년간 이어온 장대한 서사를 마무리한다. 히어로 무비의 역사를 새로 쓰면서 전 세계 영화 팬을 사로잡은 시리즈답게 마지막도 화려하다.

24일 개봉하는 ‘어벤져스:엔드게임’(어벤져스4)은 2012년 시작한 ‘어벤져스’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이다. 총 4편의 시리즈 가운데 2015년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지난해 ‘어벤져스:인피니티 워’는 국내에서 나란히 10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다. 국내에서 1000만 관객 흥행을 이룬 히어로 무비는 ‘어벤져스’ 시리즈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어벤져스4’는 2008년 시작한 마블 세계관의 1세대를 마무리하는 작품답게 규모도 남다르다. 지금껏 마블 시리즈에서 활

약한 32개 캐릭터가 집결하고, 그만큼 상영 시간도 길다.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세계 최대 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IMDB 등에 따르면 ‘어벤져스4’의 상영 시간은 3시간1분으로 알려졌다. 역대 마블 영화 가운데 최장이다.

극장들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상영시간이 스코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관계자는 8일 “3시간을 조금 넘는 만큼 일일 상영 회차가 다소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좌석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되는 ‘어벤져스’ 주역들의 대규모 프로모션은 작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또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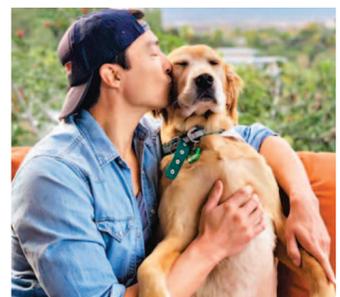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프로모션 투어를 진행 중인 ‘어벤져스’ 주역들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찾는 사실로도 벌써 이목을 끈다.

이번 내한길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브리 라슨, 제레미 러너 등 배우를 비롯해 ‘어벤져스’ 시리즈 성공을 이끈 안소니·조루조 형제 감독도 동행한다.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키 역시 내한해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11개국 취재진을 상대로 마블의 미래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제 관심은 새로운 기록을 쓸지 여부로 향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7일 “‘어벤져스4’가 개봉 첫 주 전 세계에서 9억 달러(약 1조298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역대 전 세계 흥행 1위 영화인 ‘아바타’(27억 달러·3조900억원)의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무난하게 1000만 흥행을 달성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피날레라는 점과 내한 프로모션 등으로 더욱 높아질 관심, 뚜렷한 경쟁영화가 없는 극장 상황 등이 ‘어벤져스 천하’를 예고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해시태그 킷



헤니의 브로맨스

연기자 다니엘 헤니와 반려견 로스코의 ‘브로맨스’가 팬들을 미소짓게 만든다. 청색 셔츠와 모자로 편안한 매력을 살린 다니엘 헤니는 로스코와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하고 있다. 자신의 볼에 입 맞추는 다니엘 헤니의 품이 만족스러웠는지 반려견 또한 눈을 감은 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나무가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해 마치 화보의 한 장면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이를 본 팬들은 “로스코 오랜만이야” “둘 다 사랑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다니엘헤니 #반려견사랑 #브로맨스



‘미우새’ 3부 편성, 시청자들 빨났다

뉴스인사이드

“새로운 시도” 7일부터 3부 편성에
시청자 “몰입 방해...수익 위한 꼼수”
KBS·MBC도 3부 편성 고려 전망도

SBS가 7일부터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를 매회 세 번에 나눠 방송하는 ‘3부 편성’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1부와 2부 방송 직후 유사 중간광고를 배치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시청권 침해”와 “편법적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려는 처사”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KBS와 MBC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운 우리 새끼’는 이날 밤 9시5분부터 각 40분 분량의 내용을 3편에 걸쳐 방송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3부 편성으로 인해 방송 흐름이 끊기게 됐다. 불만을 즉각적으로 제기했다. 시청자들은 “광고가 프로그램의 몰입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정도면 시청권 침해”라는 의견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이는 최근 반복적인 소재로 프로그램이 이전의 참신함을 잃었다는 실망감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시청자들은 다양한 기획으로 내실을 다져도 부족한 시기에 3부 편성은 “앞뒤가 바뀐 느낌

이 강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SBS는 “요즘 시청 패턴이 짧은 호흡으로 변화해 다양한 편성을 시도해보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SBS가 “다양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강조한 ‘편수 쪼개기’는 광고 수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의심의 시선을 받고 있다. 현행 법상 한 프로그램 사이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없는 지상파 방송사는 2017년 5월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프리미엄 광고(PCM)’를 명목으로 유사 중간광고를 시작했다.

하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유사 중간광고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는 8일 “시청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SBS의 변칙 편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다른 방책 대신 시청자의 몰입을 깨면서까지 3부 편성을 도입한 것은 분명 자성이 필요할 일”이라고 진단했다.

방송가 안팎에서는 KBS와 MBC도 조만간 이 같은 방식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시선이 많다. KBS와 MBC는 “지금까지는 3부 편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방송관계자들은 “지상파 방송 채널에 3부 편성이 자리 잡는 건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日 공연 마친 트와이스 “아시아가 좋다”

새 앨범 발표 기념 월드투어 예고
5월 전 세계 9개 도시 단독 공연



트와이스

아시아 무대는, 이제, 좋다. 걸그룹 트와이스가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활동 보폭을 넓힌다. 이들은 5월25일과 26일 펼쳐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 세계 9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를 연다.

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싱가포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어크, 시카고, 멕시코 멕시코시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모두 10회 공연을 펼친다. 이날까지 확정된 장소만 9개 도시이고, 현재 추가로 논의 중이어서 공연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7일 22만 명을 동원하며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일본 돔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또 투어 규모만 보더라도 아시아 원톱 그룹의 위상을 차지한 뒤 더 넓은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트와이스의 티켓 파워를 가늠해볼 수 있다.

소속사 측은 이날 “데뷔 이후 진행하는 투어 가운데 최대 규모”라면서 “아시아에 이어 북미까지 트와이스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와이스는 월드투어에 앞서 국내 팬들과도 만난다. 지난해 11월 ‘에스 오어 에스’ 이후 5개월 만인 22일 새 앨범을 발표한다. 일곱 번째 미니앨범 ‘팬시 유(FANCY YOU)’를 선보이고 국내 활동에 돌입한다.

컴백에 앞서 8일 공개한 타이틀곡 ‘팬시’ 티저 이미지는 트와이스만의 발랄한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 강렬한 색감의 패션에도 아홉 멤버들의 장점이 모두 부각돼 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트와이스가 이번 앨범을 통해 ‘11연타석 흥행’에 도전한다는 점도 또 다른 관심사다. 2015년 데뷔곡 ‘우아하게’를 시작으로 ‘치어 업’, ‘티타’, ‘낙낙’, ‘시그널’, ‘라이키’, ‘하트 셰이커’, ‘왓 이즈 러브’, ‘댄스 더 나잇 어웨이’, ‘에스 오어 에스’ 등을 모두 히트시켰고, 뮤직비디오 역시 전 곡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이미 넘겼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에듀윌

과목별 국가직 해설강의 제공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9급공무원 국가직 시험 어땀나...지방직 전략은?

지난 6일 국가직 9급공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총 4,987명 선발에 195,322명이 응시해 평균 3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필수과목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의 국어 배영표 교수에 따르면 2019년도 국가직 9급 시험에 대해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시험”이라고 평했다. 전반적으로 지문은 길지만 내용과 양에 비해 정답은 쉽게 구성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문제를 풀 수험생 입장에서는 허무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전했다.

배 교수는 이어 “정답의 모호성이 보이는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대표성 있는 문제들도 잘 출제가 되었다”라며, “공무원 국어는 방대하게 학습하는 것이 아닌 대표성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험생도 이에 맞춰 학습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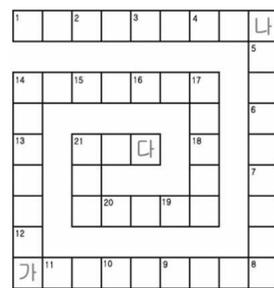


은 문제집에 수록된 내용이며, 고민할 문제도 없어 체감 난이도도 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직, 서울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 대책으로 “지역적 내용에 집착하기보단 기존에 공부한 것을 반복하여 실전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듀윌은 홈페이지를 통해 과목별 국가직 해설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채점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참여 시 전원에게 ‘서울시, 지방직 막판 뒤집기 특강’을 제공 중이다. 추첨을 통해 간식도 증정한다.

한국사 신형철 교수도 작년에 비해 너무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평했다. 신 교수는 “대부분의 내용이 기본서 혹은 문제집에 수록된 내용이며, 고민할 문제도 없어 체감 난이도도 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직, 서울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 대책으로 “지역적 내용에 집착하기보단 기존에 공부한 것을 반복하여 실전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낱말문제



01.오랜 기간에 걸쳐 싸우는 전쟁. 02.편지를 보내는 데 쓸 수 있게 훈련된 비둘기. 03.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04.임금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을 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이를 도와 정사를 돌보던 일. 05.어

떤 대상에 대하여 애착을 느끼는 마음. 06.미인을 주제로 그린 그림. 07.햇님이 애만 쓰고 아무런 보람이 없음. 08.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운이든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함. 09.큰 명절을 바로 앞두고 서는 장. 10.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물건. 11.장어나 난관을 뚫고 나갈 만한 수단이나 도리. ‘오명오’ 12.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림. 13.주로 여자가 장식용으로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 14.팡속으로 만든 길. 15.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 16.배가 고픈 느낌. 17.어떤 시대의 되어 가는 모든 형편. 또는 한 시대의 사회상. 18.실물을 보지 않고 추측과 생각으로 그린 그림. 19.첫 낱말에 신랑 신부가 자는 방. ‘오축동오’ 20.네모반듯한 종이에 풍

지를 달고, 가운데는 구멍을 낸 연. 21.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 ‘오목오어’ 22.나이가 적은 아이.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나.다.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제목이 됩니다.

